



문화방송불교연구회는 두달에 한번씩 전국 명산대찰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사진은 속리산 법주사 순례법회.

“안방불심 심는 숨은 포교사”

명찰순례·이웃 돕기 활발... 지방국 창립 유도

“부처님의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신으로 혼란의 시대를 계도할 수 있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1백여명의 문화방송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 통일문제연구소 국장·51) 회원들은 매일 셋째 목요일 12시 여의도포교원(원장 현진스님)에서 열리는 정기법회를 통해 정법(正法)을 펴는 불자방송인이 될 것을 서원한다.

영상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TV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만큼 회원들은 각기 많은 분야에서 사회에 이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성을 모은다. 요즘처럼 국가적인 혼란기에는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저마다 바쁜 마음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다.

이들에게 방송은 머리와 가슴으로 배운 불교를 사회에 회향하는 실천의 과정이기도 하다. 좀더 나은 세상, 현실에서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게 정진하고 있다. 각종 보도프로그램과 교양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광고를 통해 세상을 좀더 자비롭게 만들기 위해 불교적인 정서를 자연스럽게 담아

김재경 기자

탐방 MBC 불교연구회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추진위원장 손현수)가 오랜 산고끝에 창립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영주 성남 등 15개 지역불교산악회는 오는 6월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전국단위 연합체인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난해 10월20일 월악산 미륵세계사에서 창립준비대회를 가진 불교산악인연합회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창립법회를 가진 예정이었으나 좀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 창립을 미루었다. 실제로 창립준비대회 이후 새로 발족된 지역 모임은 대전 인천 속초 안동 마산 양산 의정부 등 7곳. 이밖에 예천 지역도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불교산악인연합회 추진위 사무총장 김대원 금강매아리산악회장은 “연합회 발족을 계기로 산행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불법을 흥포하며, 사할환경·생태계보호를 통해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등 다양한 신행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19일 추진위원회는 대전에서 창립법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5월2일 전국 지회장 회의에서 현 손현수 추진위원장을 초대회장에 추대하기로 결의(수락여부는 미정)했다. 창립법회에는 13개 지회에서 1천5백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불교산악인연합회 내달 1일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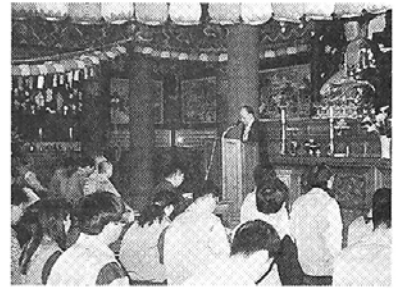
15개 지회 구성...사할환경보호 앞장

“참선·보시·절약 생활화하자”

실천지침 5개항 채택...전국대회 일정 발표

97 청정운동 결사현장

청정운동추진위원회(총재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97청정운동 결사대회를 4월 26~27일 1박2일간 파산다보수련원에서 개최했다. 40여개단체 70여명의 교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7개지역 청정운동 실천 전국대회 세부일정 확정과 5개항의 실천지침을 채택했다.



97 청정운동 결사대회.

97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는 경주 남산 용장사지(6.22)를 시작으로 속초문화회관(7.15) 논산 혼련소(8.10) 영천 제3사관학교(9.7) 청주 예술의전당(9.30) 장성 백양사(10.19) 서울 진흥원 다보빌딩(11.15)에서 개최된다. <표 참조>

또 실천지침은 △매일 참선 염불 사경중 한가지 실천 △매일 가족단위의 일일행복을 어려운 이웃에 보시 △호화사치품 사용양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한가족 하나의 문화재를 선정하여 보호 선양하기로 정했다.

이어서 결사대회에서 서돈각총재는 대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혼탁한 사회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대회는 불자들이 사회를 위한 실천운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운동의 이념과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강건기교수는 “청정운동은 시대적 요청과 책임감에 따라 일어난 신행운동이며 생명운동, 새살림운동으로 사회를 굳건히 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김원우 기자

97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 추진 일정

지역	경주	속초	논산	영천	청주	장성	서울
장소	남산 불당골	문화회관	논산혼련소 호국연무사	3사관학교 충성호국사	예술회관	백양사	다보빌딩 대법당
날짜	6월22일	7월15일	8월10일	9월7일	9월30일	10월19일	11월15일
강연(연사)	문화재보존정책과 시민운동(윤경철)	만해사상과 민족현실(박완일)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남지산)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고은)	근검절약의 생리와 권가(권기홍)	자연과 인간의 공생(박성배)	지계와 보시의 생리와(정병조)

우리 모임에선

금불련 북한동포돕기

전국금불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는 오는 24일 오후 4시30분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제17회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금불련 운영위는 지난 4월24일 열린 운영위에서 이같이 결정. 당일 모금되는 보시금을 전액 북한동포돕기에 기부기로 했다.

운불련총회 유공자포상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4월 23, 24일 수덕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합회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총무위원장상에 장지현 대구지회 조직부장, 포교위원장상에 이한수 청주지회장, 총재(법정스님)상에 조완희 수원지회장, 지도법사(경원스님)상에 이대병 안양지회장, 회장상에 유기근 광주지회장·심영보 전주지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PC통신 3개단체 수련회

PC통신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이사 함승규)의 소모임인 서경모임(서울·경기지역모임, 회장 변인택)은 4월 19, 20일 유니텔부처님나라, 칠운회(하이텔 장애법우와 함께 하는 모임, 회장 이승덕)와 함께 서울상동동 모사에서 합동수련회를 가졌다. PC통신으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장애인불자는

하이텔 'GO BUD 17' 또는 전화 (02)498-8887로 문의.

광주산악회 해인사 순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는 11일 법보종찰인 합천 해인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당일 코스로 오전 8시 광주공원에서 출발한다. 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광주근교 사찰 및 전국 명산명찰에서 성지순례 법회를 봉행한다. (062)676-4337

지하철법우회 봉축법회

지하철법우회(회장 신철호 군자차량사무소장)는 1일부터 한달간 종합운동장 역사 등 서울지하철 6개 역사에 봉축연등을 일제히 밝히고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있다.



불교청주방송 첫전파 발사

불교청주방송(FM 96.7MHz) 개국법회 및 축하 리셉션이 4월25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청주방송 10층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국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경스님,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서돈각씨, 불교청주방송 운영위원장 해경스님, 불교대구방송 사장 법타스님 등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했다.



종단진흥회 국태민안 기원

종단진흥회(회장 일공)는 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일공(원용종 총정) 윤덕(천태종 총무원장) 영명(법상종 총정) 대호(법화종 총무원장) 지명(조동종 총무원장) 법덕(용화종 총무원장) 해경(삼륜종 총무원장) 해인(대승종 총무원장) 무철(일분종교총 총무원장) 송산(해동종 총무원장)스님과 함종한의원(신한국당 불자회)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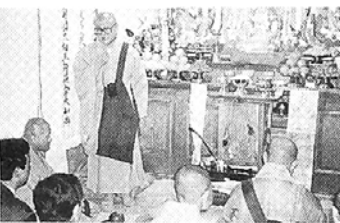
청와대불자회 거사5계 수계

청와대불교신학회(회장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는 4월26일 법련사 대법당에서 조계종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을 수계법사로 거사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박세일회장을 비롯 이각범 정책기획수석, 배재욱 사정비서관 등 61명의 회원이 수계를 받았으며, 조계종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도용스님이 월주스님의 불서를 대신 전달했다.



국민회의 연동회 봉축법회

새정치국민회의 연동회(회장 박상규의원)는 4월30일 조계사대웅전에서 봉축법회로 ‘국태민안과 국민화합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정한용·추미애의원외의 헌화에 이어 김대중총재의 격려사,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의 축사, 조계종포교위원장 성타스님의 법어가 이어졌다. 연동회는 이날 의원중심의 활동에서 당직자, 지구당위원장, 시도의원, 일반당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부산 의료원 법당 개원

“병고중생 부처님품으로”

다도·명상프로그램등 24시간 운영

부산시립의료원 법당개원식 및 불복식이 4월26일 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 성욱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부산 병원법당으로는 부산대학 병원법당에 이어 두번째로 들어선 것.

1992년부터 이곳 의료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바라밀포교원장 효종스님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화한 이 법당은 병마

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지처가 되는 물음고 전법의 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원목실 바로 옆에 자리한 15평 규모의 이 법당에는 도천스님이 법사로 상주하며 시경각 기기와 불서를 비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각종 법회와 다도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효종스님은 “언제든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 육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할 것이다”고 밝혔다. 효종스님은 2명의 인원으로 5년전 바라밀승려간병인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병원포교에 뜻을 두고 환자목욕에서 임종 측근까지 발로 뛰며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었다. 현재는 바라밀 간병교육원을 개설해 4백여명의 간병자원봉사자를 배출, 각 병원에서 봉사를 통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프로덕션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층 높여, 정답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디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후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디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사찰의 현상,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2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생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인문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 02-305-9320

팩스: 02-375-4143